취업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제공

전주시, 18일까지 생활방역·환경정비·청년지원 등 3개 분야 참여자 314명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2021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14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생활방역 ▲문화·관광시설 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 ▲청년 지원 등 3개 분야로, 총 64개 사업에 배치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관리, 방역활동 등을 생활방역 업무에 절반이 넘는 185명을 투입한다.

근무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8720원과 부대경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전주시민(청년지원 사업의 경우 만 18~39세)으로, 실직, 휴·폐업 등을 겪은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선발된다.

다만,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노사일자리지원팀(063-281-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다음 달 2일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이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농생명 ICT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융합클러스터 2.0' 기업 매출 증가·신규 고용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연말까지 200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전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농생명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이 관련 기업의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지역SW융합클러스터 2.0'과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농생명 ICT 융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지역SW융합클러스터 2.0'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6억 원 등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AIoT(사물인터넷) 기반 양계 생산 및 수요 공급망 플랫폼 구축 ▲승용형 농기계 사고 감지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정밀농업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oT 기반 양계 생산 및 수요 공급망 플랫폼의 경우 전국 하림 지정농가 50여 개에 보급되는 성과를 거뒀다. 계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양계사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양계 중량을 비롯한 가금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계사 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SW융합클러스터 2.0'을 통해 수혜기업 15개사가 매출 증가율 22%, 신규고용 33명의 성과를 내며 농생명 ICT 융합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30개사의 기업을 추가로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1000만 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기본·분석·심화 등 단계별로 운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151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이에 앞서 시와 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53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사업'을 추진했다. 농생명 ICT 융합 R&D(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165개 기업이 수혜를 입었으며, 이 기업들은 23.8%의 매출증가율과 556명을 신규고용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바로텍시너지(대표 구칠효)에서는 트랙터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경남·경북·전남 농업기술원 등에 판매했으며, 메디앙시스템(대표 박기선)은 농가 유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도내·외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했다. 또 ㈜서우엠에스(대표 박정란)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버섯재배 시스템으로 베트남 등 국내·외 판로를 개척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농생명과 ICT와의 융합 사업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전국 최고의 농생명 SW 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ICT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첫마중길 주변 도로, 걷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

전주시, 내년 6월까지 14억여원 투입 우아로·도당산로서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전주역 앞 대로를 보행친화도로인 첫마중길로 탈바꿈시킨 데 이어 첫마중길을 관통하는 주변 도로도 보행자에게 안전한 걷기 좋은 도로로 변신시키기로 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우아동 우아로(구 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 도당산로 0.4㎞ 구간에서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구간은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변경하고 가로숲과 광장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한 도로로 손꼽히는 첫마중길을 '十(십)'자 형태로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우아동 우아로(구 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 도당산로 0.4㎞ 구간에서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바탕으로 도로의 선형을 안전하게 개량하고 가로시설물을 정비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시는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직선형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또 보행에 불편함을 주던 기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를 제거한 뒤 각종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 조명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던 전선들을 정비하는 지중화사업도 함께 추진해 통행공간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향후 시는 첫마중길 인근의 도당산3길과 도당산4길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스팔트 표면에 문양과 칼라무늬를 구현하는 도막포장과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의 개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첫마중길'로 대상에,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길로, 중앙 보행광장,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모집

28일까지 13~18세 청소년 100명

전주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경험해보는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28일까지 '2021년 제2기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에 참여할 13~18세 청소년 10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창의력과 자기주도력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주시 야호학교의 핵심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주말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이뤄진다.

청소년들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구성한 뒤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하고 함께 즐기며 실행해 나가게 된다. 올 12월에는 4개월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프로젝트 팀 활동비와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진다. 프로젝트 활동에 길잡이가 되어 줄 퇴움활동단도 지원된다.

희망자는 온라인(http://naver.me/Fjpgao61)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다제약물관리 2차 시범사업' 호남권 병·의원 중 유일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이 호남권 병·의원 중 유일하게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 2차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1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 2차 시범사업 공모에서 호남권 병·의원 중 유일하게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2022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다제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 올바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약사가 직접 약물복용을 상담하고 처방을 검토해주는 것을 골자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정확한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토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전북대병원이 선정된 '병원모형'은 입·퇴원부터 귀가 후까지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및 상담을 하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이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복용(6개월 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하는 약 성분이 10종 이상인 환자와 의료진이 약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서비스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입원관리에서는 입원환자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설명 및 동의서 작성, 포괄적 약물 평가 및 계획수립, 필요시 처방조정을 등을 한다. 2차 퇴원점검에서는 퇴원 처방약 점검, 복약상담, 필요시 처방조정을 하고 3차 유선상담에서는 상담교육 이해도 및 순응도 평가,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며 4차 외래상담에서는 부작용 및 복약순응도 평가, 필요시 처방 조정 등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지역약국과 연계해 가정방문과 유선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